

<토론문>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태희원

○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 필요성

-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구현’을 위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비농어업인 등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임
- 정책 대상 및 영역은 농어업인·농어촌주민, 농어촌사회 전반이지만, 그동안의 계획 추진이 농어업인, 노인 등 특정 계층을 위주로 하여 여성, 청년, 아동 등 성별, 생애주기별 이슈 파악과 수요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음
- 농촌 고령층 인구 증가 속에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점차 확대되고 다양화된 경향이 있으나 영·유아, 아동·청소년 정책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가부장제적 농촌사회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노동부담 과중을 지속시키고 있음. 정책 대상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혜의 형평성을 분석할 때 성인지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임

○ 성평등 직접 목적 사업과 성평등 간접 목적 사업의 구분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사업들을 살펴보면(충남 사례), 여성/농업인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설정하거나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성평등 직접목적 사업과 농촌주민 전체를 정책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성평등 간접목적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성평등 직접목적 사업:** 보건의료 ‘분만 및 소아청소년과 의료 취약지 해소 지원’, ‘여성농어업인 특수 건강검진’, ‘보육시설·서비스’, ‘노령 및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농어촌 여성 및 다문화 여성의 취업 지원 강화’, ‘방과 후 학교’ 등
- **성평등 간접목적 사업:**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 ‘국민연금 가입’, ‘작업안전 보장’, ‘농업노동환경 위험도 DB구축’, ‘농어촌 성인 문해교육’ ‘청년 취업 및 창업 촉진’ ‘문화·여가 인프라’, ‘농어촌 문화공동체 활성화’ 등은 성별에 따른 정책수혜·접근성·수요 차이 고려, 이에 따른 성과측정 방안이 필요함
- **성평등 직접목적 사업은 해당 사업이 필요한 이유와 체감도 향상방안, 성평등 간접**

목적 사업은 성별 특성과 차이, 격차 원인 분석이 필요함. (* 노후준비 성별 격차, 농작업 활동에 따른 안전예방활동 차이, 교육수준 차이, 청년 농업정책 성별 균형 참여 필요(청년여성농업인 부모 자원, 인맥, 기술 수준 애로사항 존재), 문화여가 만족도 성별 격차, 가부장제적 농촌사회에서 여성 지역사회 참여 어려움 등 고려)

○ 성평등 직접 목적 사업과 성평등 간접 목적 사업의 이행 점검(성과 측정 방법)

- 정책 수혜의 성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수립 및 점검
- 성평등 직접목적 사업: 사업 자체의 품질 향상, 수혜 범위 확대
(여성이 주요 대상자, 수혜자인 경우) 수혜자수, 수혜율
- 성평등 간접목적 사업: 사업의 성별 수혜율을 측정을 통한 성평등 수준 관리
(여성, 남성이 대상자, 수혜자인 경우) 수혜율 성비

※ 참고. 충청남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의 성과지표 정비(2020)

○ 목적: 성평등한 수혜율 지향, 결과 지표

- 수혜율 성비(sex ratio) = 여성수혜율/남성수혜율*100

· 여성수혜율 = 여성 수혜자수/여성 대상자수*100

· 남성수혜율 = 남성 수혜자수/남성 대상자수*100

- 완전 평등(100) : 사업대상자 성별 비율=사업수혜자 성별 비율

○ 의미: 여성의 절대적 수준보다 남성 대비 여성의 수준(성별 격차) 파악,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에 관한 신뢰성 있는 성별 분리 통계자료 생산 촉진

- 정책 추진 이행현황에 대하여 농촌주민이 참여하는 성평등 모니터링 추진/환류
- 여성과 남성의 고른 수혜와 역량 증진, 의사결정 참여 등에 대한 지표 작성/점검

○ 농촌 주민들은 성과 중심적 정책에서 농촌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사람이 없기/적기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소수 정책 대상자의 ‘작은’ 욕구를 반영하는 정책이 고안될 필요가 있음.